

대 언 예 언 반

교재

데이빗리목사 지음

홀리타임즈

목차

CONTENTS

- 제 1 장 예언의 장소 _ 5
- 제 2 장 음성을 듣는 장소 _ 18
- 제 3 장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 _ 29
- 제 4 장 대언예언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 _ 42
- 제 5 장 대언예언의 방법 _ 54
- 제 6 장 대언예언 실습 _ 66







1 장

/

예언의 종류

제 1 장 예언의 종류



훈련 목적

- *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봅시다
- *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는지 확인해 봅시다
- * 하나님의 대언으로 예언해 봅시다
- * 대언예언으로 내적치유를 해봅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3명씩 대언예언을 한다
- * 매일 성령님과 스트링을 한다
- *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댓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1. 영감예언

가. 영감예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예언하는 것입니다.

- 영감예언도 성령님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입니다.
- 영감예언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며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 영감예언을 하는 사람은 매우 영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영감예언은 예언자가 입을 열 때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 영감예언은 예언하는 사람의 영적상태에 따라 변화가 심합니다.

- 영감예언은 영적 감동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 만일 예언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예언을 했을 때 예언하는 사람의 더러운 죄가 묻어서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 성령님께서 주시는 예언은 깨끗한 것이지만 영감예언자의 영적인 더러움 때문에 더러운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 영감예언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 영감예언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생김새, 옷차림, 태도, 눈빛, 얼굴색, 말투, 직분, 가정환경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합니다. 이는 영감예언을 하기 위해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입니다.
- 영감예언을 하는 사람은 가급적 말을 안하고 한동안 상대방을 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미리 파악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 하지만 만일 진정한 성령님의 예언을 전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할지라도 가능할 것입니다.

라. 영감예언은 선입견이 묻어 있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예언을 함에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선입견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영감예언은 선입견을 갖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해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릇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았습니다(대상 17:1-2).
- 하지만 대언예언은 상대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언을 하기 때문에 선입견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보다 깨끗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대언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선입견이 없었던 것입니다(겔 36:3-7).

2. 환상예언

가. 환상예언이란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환

[대상 17:1]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와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대상 17:2]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은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시라 [대상 17:3]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대상 17:4]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겔 37:3]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겔 37:4]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지어다 [겔 37:5]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겔 37:6] 너희 위에 흙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

상을 보고 그 환상을 해석함으로써 예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환상예언은 영감예언보다는 덜 선입견이 묻어 있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환상 그 자체가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환상예언을 하게 될 때 선입견이 훨씬 없는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 환상예언은 대언예언에 비해 매우 빠르게 뜻이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환상은 음성보다 훨씬 빠르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끝까지 음성을 다 들어야 하지만 환상의 경우엔 한 장면에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을 수 있으며 환상이 영상으로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매우 빠른 시간에 성령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 보통적으로 환상예언은 대언예언이나 영감예언과 함께 역사하는 경향이 있다.

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겔 37:7] 이에 내가 명을 좇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 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 환상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 환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환상예언이 영감예언이 될 수도 있고 대언예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환상을 보는 것은 매우 영적인 활동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환상을 가지고서 영감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엔 영감예언처럼 선입견이 많이 묻어있는 예언이 되고 맙니다.
- 환상은 반드시 대언예언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는 오직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보여진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 보여진 환상에 대해 성령님의 음성으로 해석되어질 때 이는 대언예언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예언을 하는 사람이 어찌면 대언예언을 하는 사람보다 더 자세하고 명확한 대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대언예언

가. 대언예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대로 전달하는 예언을 말합니다.

나. 모든 예언은 '대언'입니다.

- '대언'이라는 단어는 '예언'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에스겔 37:9-10).
- 히브리어 <나바>라는 말은 '예언하다'라는 말로 '예언하다'와 함께 '대언하다'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성경에 사용되는 '예언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말을 그대로 전하는 '대언'의 형식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모든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한 것이다(벧후 1:20-21).

-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겔 37:9]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겔 37:10]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벧후 1:20]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벧후 1: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 예언은 사람의 감동에 의해 선입견으로 전달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 예언은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 신약의 '예언'이라는 단어인 <프로페테이아>는 히브리어 <나바>와 같은 말입니다.

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아버지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만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 예수님은 하나님아버지로부터 들으신 것을 전하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전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감정따라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요 12:49-50).
-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오직 하나님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백성들에게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스스로 어떤 가르침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요 12:49]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요 12:50]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가르쳤다는 것이 아닙니다(요 8:28).

-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오직 하나님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오직 하나님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만을 그대로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요 5:19).

마. 대언예언은 선입견이 최대한 배제된 예언입니다.

- 대언예언은 성령님께서 들려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선입견이 많이 묻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하지만 대언예언 역시 선입견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더 깨끗한 영성일수록 더 정확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 8:28]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듣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 5:19]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사. 대언예언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예언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해야 합니다.
- 보다 정확한 대언을 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 할지라도 자기 뜻이나 자기 감정에 따라 예언을 하면 더러운 예언이 되고 맙니다.
- 오직 예수님처럼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야 합니다.



2 장

/

음성을 듣는
장소

제 2 장 음성을 듣는 장소

훈련 목적

- *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봅시다
- *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는지 확인해 봅시다
- * 하나님의 대언으로 예언해 봅시다
- * 대언예언으로 내적치유를 해봅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3명씩 대언예언을 한다
- * 매일 성령님과 스트링을 한다
- *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댓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1. 뇌에서 보고 듣는다.

가. 다니엘은 뇌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듣고 보았습니다(단 7:1).

- 다니엘이 '뇌'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듣고 보았다는 사실은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장소를 분명하게 알게 해 줍니다.

- '뇌'는 히브리어로 <레쉬>입니다. 이는 '두목'이나 '개요'라는 뜻 외에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장소로 언급되었습니다.
- 한글개정판과 여러 한글성경에서는 '머리 속'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은 뇌와 연관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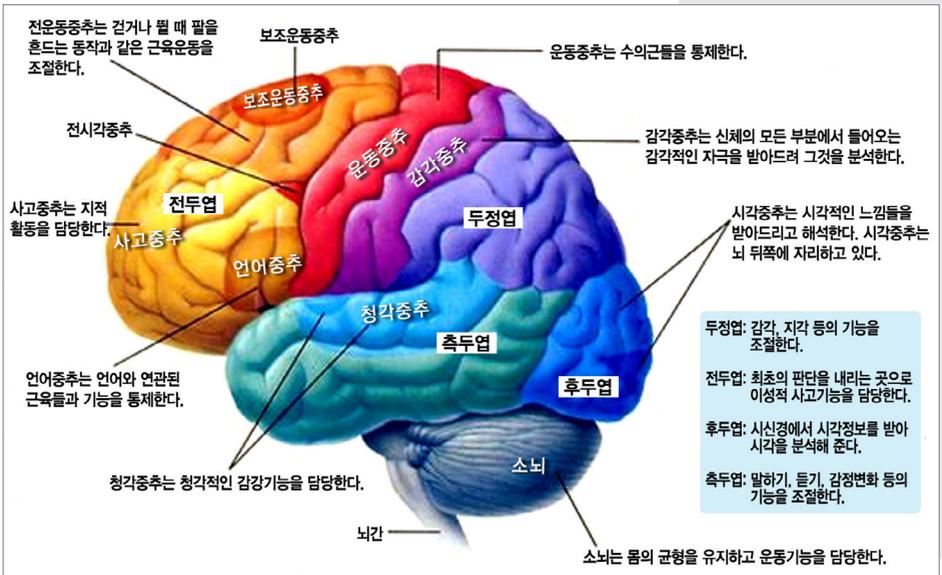
나. 주로 하나님의 음성은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들립니다.

- 어떤 사람은 가슴에서 듣기도 하며 심지어 배에서 듣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 가슴에서 듣는다고 느껴질 뿐 실상은 뇌의 깊숙한 곳에서 듣는 것입니다.
- 현대 의학에서 연구된 바에 의하면 뇌의 가장 깊은 곳인 측두엽에 '시각신경'과 '청각신경'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

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환상은 뇌와 이마 사이에서 보게 됩니다.

- 어떤 사람은 두 눈이 한 가운데로 모여 질 수 있는 가장 근거리 부분에서 보기도 합니다.
- 대략 눈에서 주먹정도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주로 전두엽 부분에서 보여진다고 생각할 수 있



겠습니다.

2. 육적인 활동이 아닌 영적인 활동이다.

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영적인 활동입니다.

-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오직 영적인 귀가 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롬 8:16).

나. 하나님의 환상 또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 환상 또한 우리의 영의 영역에서 보여지는 것이며 영안이 열려야 가능한 것입니다(단 2:19).
- 육체의 눈으로 환상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영의 눈으로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롬 8: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단 2:19]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

다. 하나님의 음성은 매우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것은 오직 영적으로 집중할 때라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최대한 집중해야 합니다.
- 이렇게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 엘리야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했습니다(왕상 19:11-13).
- 이는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 세미한 음성은 작은 소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영의 소리를 말합니다.

-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로서 들려진 소리는 오직 예수님만 들으셨

[왕상 19:1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왕상 19:12]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왕상 19:13] 엘리야가 듣고 겹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 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습니다.

- 만일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을 것입니다(마 3:16-17).

마.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 영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환상도 볼 수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 있으며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창 1:26).

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영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 소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 하지만 보다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은 비록 영안으로 본다 할지라도 매우 선

[마 3: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 3:17]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창 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명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 사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직 사울만 보여지는 환상과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난 정도로만 느꼈을 뿐입니다(행 9:3-4).
- 환상은 사람에 따라 사진같기도 하고 영상같기도 합니다. 또한 칼라로도 보이거나 흑백으로도 보여집니다.

[행 9:3]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행 9:4]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3.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가.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은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이거나 의지로 음성과 환상을 듣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상상의 주체는 나 자신이지만 환상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 상상은 환상과 비슷하지만 주체가 나

자신입니다. 상상과 환상이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환상을 직접 본 사람은 환상과 상상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속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과 사뭇 비슷하지만 주체가 나 자신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자신의 음성과 성령님의 음성이 얼마나 확연히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상상과 환상, 속으로 하는 말과 하나님의 음성의 차이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다. 우리는 성령님의 환상과 음성을 통해 인도함을 받습니다.

- 요셉은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마리아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마 1:20).
- 이처럼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사람

[마 1: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에게 보여진 환상과 음성은 다니엘, 고넬료, 아비멜렉, 솔로몬 등에게 임하셨습니다(단 2:19, 행 10:3, 창 20:3, 왕상 3:5).

4. 깨끗할수록 깨끗하게 보고 듣습니다.

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이 열릴 때 다소 희미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선명하게 듣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에는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나. 환상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나타나며 흑백과 칼라로 나타납니다.

다. 환상과 음성이 어떤 때는 희미하지만 어떤 때는 선명합니다. 음성도 잘 안 들렸다가 어떤 날은 매우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단 2:19]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행 10:3] 하루는 제구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창 20:3]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마 1: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왕상 3:5]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보다 선명한 환상과 음성을 보고 듣게 됩니다.

마. 정결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에서 죄가 없어야 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 막아서 음성과 환상을 듣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 59:1-2).

[사 59:1]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사 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3 장

/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

제3장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

훈련 목적

- *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봅시다
- *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는지 확인해 봅시다
- * 하나님의 대언으로 예언해 봅시다
- * 대언예언으로 내적치유를 해봅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3명씩 대언예언을 한다
- * 매일 성령님과 스트링을 한다
- *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댓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1.. 하나님의 속성(사랑과 거룩)에 맞는지 구분하라

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하나님과 사탄의 음성이 다릅니다.

나. 사탄의 반응:

- 사단은 지나치게 사랑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모든 사람을 천국가게 하신다. 지옥은 없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 또한 사탄은 지나치게 공의쪽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왜 항상 너만 손해를 봐야하지? 너도 복수를 해 버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

- 하나님은 사랑을 강조하시면서도 거룩한 성품도 느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 하셔도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도 죄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 항상 하나님의 음성은 적절하게 들려줍니다. 사랑과 거룩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 들려지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

성이 아닙니다. 사랑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공의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과 공의에 있어 적절함이 있습니다 (요일 3:10).

[요일 3:10] 이렇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2. 성령님의 음성을 성경으로 확증하십시오.

- 가. 성령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구분하기 위해 반드시 성경으로 확증하십시오.
- 성령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반드시 "성령님, 들려주신 말씀을 성경말씀으로 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십시오.
 - 그러면 성경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성경말씀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대략적인 부분이나 성경전체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 하지만 전혀 성경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성경말씀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 그렇기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평소에 성경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나. 성령님의 음성이라면 성경말씀과 일치됩니다. 하지만 마귀의 음성이라면 성경말씀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 비록 마귀의 음성이 성경과 일치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성경전체적인 흐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단들의 주장과도 같습니다. 이단들의 성경해석이 부분적인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마귀의 음성 또한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3.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음성인지 아니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음성인지를 구분하라

가. 일단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망하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

해야 합니다.

나.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 교회를 나가지말라는 음성을 들었고 그대로 행했는데 오히려 사업이 잘 된다면 그것은 마귀의 음성입니다. 사업이 잘 되기때문에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교회 안나가지만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인생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 "괜찮아.. 그 정도 하면 됐어"라는 음성을 듣고 믿음생활을 등한시했는데 오히려 자녀들이 더 잘되는 것은 마귀의 음성입니다.
- 이처럼 언뜻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사탄의 음성은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마 16:23, 고후 11:14).

다. 하나님은 비록 쓴 말이지만 우리를 유익되

[마 16: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고후 11:14]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게 하십니다.

- "교회 나가지 않으면 사업이 잘 안 될 것이다"라는 음성을 들을 땐 듣기 싫은 소리여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싶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 "네가 그렇게 행하면 네 자녀에게 큰 문제가 있을것이라"는 음성이 끔찍하고 듣고 싶지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 이처럼 언뜻 보기에는 나쁜 말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오히려 우리를 유익되게 합니다(벧전 4:13).

[벧전 4:13]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4. 환경을 통해서 구분하라

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오늘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 하지만 사탄은 과거나 미래와 연관되

어 있습니다.

- 사탄은 과거의 안좋은 일을 생각나게 하고 과거의 잘못을 생각나게 합니다.
- 사탄이 과거의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나를 사로잡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과거를 지우십니다. 완전히 잊게 만드십니다. 그리곤 새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 사탄은 미래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게 미래만 바라볼 때에 사람이 허황된 꿈을 갖게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며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무너지게 합니다.
- 사탄은 현실을 도피하게 합니다.
- 하지만 하나님은 매우 현실적이며 매우 실제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용서하라 하시고 지금 당장 사랑하라 하십니다.

나.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요구하십니다(마 4:3, 고전 10:13).

[마 4: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고전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 하지만 사탄은 사탄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도록 합니다.
- 사탄은 형편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며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형편에 맞는 요구를 하십니다.
- 예를 들면, 사탄은 "네가 나를 위해 집을 팔아서 헌금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라"고 하십니다.

5. 마음의 느낌을 통해서 구분하라

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갖게 합니다(롬 8:6).

-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평안, 위로, 소망, 사랑, 감사, 기쁨, 인내가 넘칩니

[롬 8: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

-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겸손함이 있고 죄악으로 가득찬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 회개하게 됩니다.

나. 사탄의 말은 우리 마음에 불안함을 줍니다.

-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의 음성인양 속 일지라도 그것이 사탄이 주는 말이라면 불안하게 됩니다.
- 사탄의 음성이 들리게 될 때 우리에게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 절망, 슬픔, 걱정, 근심, 증오, 질투, 시기 등이 찾아옵니다.
- 사탄의 음성을 자주 듣는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파괴적이며 폭력적으로 변화되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공격적으로 변화됩니다.

6. 열매를 통해서 구분하라

가. 주님은 열매를 통해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마 7:20).

- 우리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하는 사람과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자와 마귀의 사역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 사탄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마귀를 섬기도록 인도합니다.

-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합니다(살후 2:9-10).
-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역자같지만 그 사역자와 함께 할 때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 예를 들면, 어떤 사역자(사람)와 함께 한 이후에 질병이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마 7:20]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살후 2:9]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살후 2:10]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생기고, 평안이 없어진 것은 그 사역자의 영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 어떤 사역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대로 행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됐을 경우엔 그 사역자를 의심해야 합니다(요일 4:1-2).
- 양신역사를 행하는 사람은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사역을 받는 사람은 무엇을 심든 잘 안 되며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말씀하십니다.

-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갈 5:22-23).
-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삶 가운데 빛의 열매가 나타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엡 5:9).

[요일 4:1] 사랑하는 자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요일 4:2]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갈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총성과 [갈 5: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엡 5: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4 장

/

대언예언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

제 4 장 대언예언하는데 필요한 조건

훈련 목적

- *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봅시다
- *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는지 확인해 봅시다
- * 하나님의 대언으로 예언해 봅시다
- * 대언예언으로 내적치유를 해봅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3명씩 대언예언을 한다
- * 매일 성령님과 스트링을 한다
- *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댓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1. 정결해야 한다

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사 59:1-2, 고전 3:16).

나. 정결해지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끗해지는 것을 말합니다(잠 28:13, 시

[사 59:1]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사 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51:11).

-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결치 못한 것입니다.
-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정결치 못한 것입니다.
- 만일 당신이 남의 것을 탐하거나 훔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정결치 못한 것입니다.
- 정결은 당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낮고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길 때 비로소 정결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빌 2:3).

다. 죄는 정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정결해 질 수 있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 돈을 사랑할 때 죄를 짓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많은 유혹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딤후 6:10).
-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

[잠 28:13]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시 51: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빌 2:3] 아무 일에도 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딤후 6: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마 6:24).

- 먹을 양식을 위해 예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겔 13:19).

2. 기록해야 한다.

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록해지는 것입니다(벧전 1:16).

나. 기록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 정결의 과정이 완료될 때 비로소 기록의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 정결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기록의 과정을 밟을 수 없습니다.

[마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 하느니라

[겔 13:19]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욱되게 하여 거짓말을 곧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벧전 1:16] 기록하였으되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기록할찌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의 과정을 위해 정결의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고전 3:16).
- 만일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실 것입니다(고전 3:17).

라. 우리 몸이 성전으로서의 완전한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롬 12:1, 요 15:4-5).

마. 일부러 거룩한척하거나 신령한척 해서는 안 됩니다(겔 13:18).

- 신령해 보이려고 손목에 뽕가를 차서는 안 됩니다.
- 신령해 보이기 위해 향을 피우거나 십자가를 긋거나 해서도 안 됩니다.

[고전 3: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3: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 15: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겔 13:18]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

- 신령해 보이기 위해 어떤 이상한 자세를 취해서도 안 됩니다.

라. 기록해지는 것에 대한 조건은 십계명의 첫 네가지 계명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출 20:1-8).

3. 집중해야 한다.

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집중이 필요합니다.

- 집중은 육과 혼을 죽이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육과 혼을 죽이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쳐 복종시켜야 합니다(갈 5:24).
- 집중은 세상을 떠날 때 생겨납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육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는 영적으로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

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랑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출 20:1]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 20: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 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출 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도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 20: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 20: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을 떠날 수 있습니다.

- 집중은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데 육적인 기도나 혼적인 기도보다 영적인 기도를 통해 더욱 집중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렘 29:13).
- 영적인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골방기도입니다. 우리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마 6:6).
- 영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은 성장하게 되며 영적 능력이 더 커져감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막 9:29).

나. 집중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 영적으로 잘 집중이 되어 있으면 우리의 육체 또한 집중이 잘 됩니다.
-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항상 영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요 4:24).

를 죄 없다 하지 아니 하리라 [출 20:8] 안식 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갈 5: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렘 29:13]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마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막 9:29]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주님은 항상 영적기도를 드리시기 위해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적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막 1:35).
- 베드로와 바울은 영적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영적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배웠던 것입니다 (행 10:10, 행 22:17).

[막 1:35]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행 10:10]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행 22:17]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4.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 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대언예언을 할 수 없습니다.
-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대언예언을 잘 할 수 있습니다.
 - 대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만 대언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 영감으로

행할 때에 큰 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시대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뜻
 대로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바람에 그 선지자를 죽게 만들었던 사
 건처럼 영감으로 사역할 때 자칫 잘못
 하다간 큰 화를 초래하게 됩니다(왕상
 13:15-24).

나. 매사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 어느 한 순간이라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에 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매사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서 판단하
 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
 다.
-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했
 던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의 말을 쉽게
 믿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선지자라
 고 말을 했기 때문이며 그 사람이 하나
 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왕상 13:15]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왕상 13:16]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왕상 13:17]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음이라 [왕상 13:18]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와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왕상 13:19]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왕상 13:20]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와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왕상 13:21] 저가 유대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여호와와 말씀을

것을 사실로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일로 사자에게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이처럼 자칫 잘못하다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왕상 13장 참조).

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영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 성령님의 음성은 마치 친구나 배우자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 오직 성령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교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영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롬 8:16).

5. 생활에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한다.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왕상 13:22]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왕상 13:23]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에 안장을 지우니라 [왕상 13:24]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이매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롬 8: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완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 우리가 배우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 하지만 단순히 가까이 있다고 해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 성령님과 집중하기 위해서는 영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 날마다 영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영의 기도는 당신으로 하여금 영적인 집중을 갖게 합니다.
- 이러한 영적 집중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보다 잘 듣게 됩니다.
- 가장 고차원적인 영적기도는 성령님과 의 대화입니다. 다른 기도법보다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욱 강력합니다.



5 장

/

대언예언의
방법

제 5 장 대언예언의 방법

훈련 목적

- *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봅시다
- *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는지 확인해 봅시다
- * 하나님의 대언으로 예언해 봅시다
- * 대언예언으로 내적치유를 해봅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3명씩 대언예언을 한다
- * 매일 성령님과 스트링을 한다
- *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댓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1.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

가. 최대한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 매사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서 대언을 해야합니다.
- 한 순간이라도 성령님의 음성이 아닌 자신의 감정이나 뜻으로 대언을 할 경우엔 크고 두려운 형벌이 임하게 됩니

다.

-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선 항상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통로를 열어 놓고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잘 듣는 사람이 대언도 잘 합니다.

나.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 자신의 영감을 의존하게 되면 습관이 됩니다.
- 대언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언자의 감정이나 생각들이 대언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2. 성령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하라

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후 그 음성을 자신의 말투나 자신의 생각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 성령님으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

십시오.

- 성령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식으로 전하지 마십시오.

나. 성령님의 음성에 뭔가를 더하지도 말고 뭔가를 빼지도 마십시오.

- 어떤 대언예언자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성령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성경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죄악과 같은 것입니다.
-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만일 성령님께서 영어로 말씀하시면 영어로 말하십시오. 사투리로 말씀하시면 사투리로 말씀하십시오. 표준어로 말씀하신 것을 사투리로 바꾸지 마십시오.
-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겔 37:9-10).

[겔 37:9]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겔 37:10]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의 명령을 받고서 나아온 사신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그대로 대언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였습니다(왕상 22:13-14).

[왕상 22:13]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 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왕상 22:14]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3. 선입견을 버려라

가.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면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 상대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알수록 정확하고 깨끗한 대언을 하기 힘들어 집니다.
- 이는 선입견이 그렇게 만듭니다. 선입견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나. 선입견은 오물과도 같습니다.

- 영감예언이든 대언예언이든 선입견이 들어가게 되면 제대로 예언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 영감예언은 대언예언이나 환상예언에 비해 매우 선입견이 높습니다.
-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식의 대언예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 선입견이 있을 경우엔 선입견이 묻어있는체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에 잘못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 성령님의 음성은 100% 이지만 선입견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

4. 성령님의 음성을 신뢰하라

- 가. 자신이 들은 음성이 100% 정확하다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 자신이 들은 성령님의 음성이 100% 맞다고 확신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런 태도는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 자신이 들은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 자신이 없는 사람은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나. 다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게 하려고 주변 환경을 시끄럽게 합니다. 갑자기 파리가 날라 다니는 소리가 들리거나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모두 방해입니다.
-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오직 성령님의 음성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5. 상대방을 살리는 예언을 하라

가. 절대로 성령님은 상대방을 죽이는 예언을 주지 않으십니다.

- 어떤 예언자는 사람을 죽이는 대언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성격이 더럽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제로 인해 자신 스스로 더럽혀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의 좋지 못한 성격에 의해 잘못 전달되어진 대언말씀을 들을 땐 죽고 싶은 심정이 생겨납니다.
- 만일 상대방을 죽이는 예언이 들린다면 다시 한번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음성이 들릴 때에도 다시 한번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들려진 말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나. 부정적인 내용이 들리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 대언의 말씀이 부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때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매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오히려 담대하게 듣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면 아무리 부정적인 대언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이 기분나빠 하거나 그 대언의 말씀으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잘못된 대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6. 한 영혼에 대한 최고의 정성을 보이라

- 가. 한 영혼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십시오.
 - 당신이 대언자라고 해서 상대방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 대언자는 늘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대언자는 늘 정결과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 깨끗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 대언자가 겸손한 자세와 정성어린 자세를 갖추게 되면 상대방의 상처가 훨씬 빨리 치유가 됩니다.

나. 하대하는 말이나 거친 말을 하지 마십시오.

- 주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공손한 말투를 사용하셨습니다.
-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5:40).

다. 당신이 예언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보다 영적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상대방을 깔보거나 멸시하지 마십시오.
- 대언자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명령하듯 해서는 안 됩니다.
- 점쟁이처럼 상대방을 함부로 대해서도

[마 25: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안 됩니다. 그것이 권세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왜 그런 추악한 모습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7. 담대함을 보이라

가. 상대방에게 당신의 담대함을 보여야 합니다.

- 별로 실력이 없어 보이는 의사에게 누가 자신의 몸을 맡기겠습니까?
- 당신의 능력으로 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만 들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성령님의 음성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 성령님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당신의 성격을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모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6 장

/

대언예언
실습

제 6 장 대언예언 실습

훈련 목적

- *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봅시다
- *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는지 확인해 봅시다
- * 하나님의 대언으로 예언해 봅시다
- * 대언예언으로 내적치유를 해봅시다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일 3명씩 대언예언을 한다
- * 매일 성령님과 스트링을 한다
- * 영성훈련 필독서를 읽는다
- * 댓글숙제를 열심히 한다

1. 음성듣고 대언하기 실습

가. 실습을 위한 참조사항:

- 1)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위기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혼적이고 육적인 환경에서는 여간해선 환상을 보기 어렵습니다.

- 2) 나의 영의 소리와 성령님의 소리를 구분해서 듣는 실습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창 1:26).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성령)의 소리르 들을 수 있으며 교재를 나눌 수 있습니다(롬 8:16).
- 3) 점차 선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실습합니다. 처음에는 한 단어로 들려지고 희미한 음성이 들려지지만 점점 문장으로 음성이 들리며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 4) 하나님의 음성은 매우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엘리야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왕상 19:11-13).
- 5) 세미한 음성은 작은 소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영의 소리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로서 들려진 소리는 오직 예수님만

[창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롬 8:16]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왕상 19:11]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왕상 19:12]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들으셨습니다. 만일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을 것입니다(마 3:16-17).

- 6) 팀을 편성하여 팀별로 실습을 하면 좋습니다. 팀장의 인도하에 실습을 하면 됩니다. 이 때 인도자는 팀들이 실습을 잘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실습이 끝나면 팀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서 그 대표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누가 잘 하는지 대항전을 펼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7) 한 사람을 지목하여 그 사람을 위해 음성을 듣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8)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생각하면서 음성을 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 실습 순서:

- 1) 나의 영을 인식하게 합니다.
 - 상상의 영역은 혼의 영역입니다. 환

[마 3: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 3:17]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상과 음성을 보고 듣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영의 영역을 인식해야 합니다.

- 자신의 영의 영역을 인식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조치는 자신의 영에게 질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자신이 자신의 영과 대화를 나누는 행위를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영에게 질문할 때 자신의 영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자칫 잘못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멀리하고서 자신의 영과만 대화를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방법은 단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을 느끼도록 인도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 사람이 성령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에 성령님의 음성과 그 사

람의 영의 음성이 비슷하게 느껴
집니다. 그렇기때문에 굳이 성령
님의 음성과 자기 영의 음성을 구
분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
다.

- 2) 이렇게 자신의 영을 인식하는 과정이
끝났으면 이제는 성령님께 환상을 보
여달라고 요청하거나 음성을 들려달라
고 요청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3) 자기 영의 소리를 듣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곧바로 성령님의 음성
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영이 활짝
열려진 사람은 곧바로 성령님의 음성
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 4) 음성을 들을 때는 반드시 "성령님, 000
에 대해 음성을 들려주세요"라고 속으
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서 그 사람에게 대한 음성을 들려 주십니
다.
- 5) 들려지는 성령님 음성으로 대언을 하
게 합니다. 대언을 할 때는 반드시 들

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들려진 음성을 자기 맘대로 바꾸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집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2. 성령님과 대화 실습

가. 실습을 위한 참조사항:

- 1) 성령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영적 분위기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분위기가 혼적이고 육적인 환경에서는 여간해선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 2)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 3)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의 대화법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여러가지 것에 대해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을 하면 성령

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대화를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나. 실습 순서:

1) 찬양 시간을 갖습니다.

- 찬양을 30분 이상 부릅니다. 빠른 찬양은 잡다한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있게합니다. 빠른 찬양을 3곡 정도 신나게 부릅니다. 춤을 추게 해도 좋습니다.
- 빠른 찬양이 끝나면 보혈 뿌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혈을 뿌리게 되면 환경이 영적인 분위기로 조성됩니다.
- 보혈을 다 뿌린 후에는 조용하면서도 영적인 가사가 있는 찬양곡을 부릅니다. 2-3곡 정도 부르면서 분위기를 최대한 영적으로 이끕니다.

2) 방언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 어느 정도 찬양을 부르다가 적절한 순간에 방언기도를 드립니다. 방언기도는 세파크 방언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파크 방언기도는 세게, 빠르게, 크게 방언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 a. 세게: 형식적으로 힘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열정적으로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 b. 빠르게: 방언기도 속도를 아주 빠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 c. 크게: 방언기도를 아주 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음을 높여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장소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음을 최대한 높이고 대신 소리는 작게 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3) 영광체험의 시간을 갖습니다.

- 영광체험의 시간 동안에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성령님께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성령님과의 대화를 연결시켜보세요. 그러면 오랜 시간동안 대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 3) 성령님과의 오랜 대화는 성령님의 능력과 성품을 닮게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의미하신 것입니다(막 9:29).

[막 9:29]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3. 음성과 환상의 장소 찾기 실습

가. 실습을 위한 참조사항:

- 1)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음성이 들려지는 장소를 찾아야합니다.

장소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 2)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장소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에서 들리기도 하고 배에서 들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나요?
- 3) 성령님의 음성은 뇌에서 들려집니다. 다니엘도 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단 7:1).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은 뇌와 연관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뇌에서 듣는 시도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쉽고 선명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 4) 정결하고 거룩해야 선명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선명한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정결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에서 죄가 없어야 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는 이처럼 하

[단 7:1]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 막아서 음성
과 환상을 듣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사
59:1-2).

나. 실습 순서:

1) 찬양 시간을 갖습니다.

- 찬양을 30분 이상 부릅니다. 빠른 찬양은 잡다한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있게합니다. 빠른 찬양을 3곡 정도 신나게 부릅니다. 춤을 추게 해도 좋습니다.
- 빠른 찬양이 끝나면 보혈 뿌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혈을 뿌리게 되면 환경이 영적인 분위기로 조성됩니다.
- 보혈을 다 뿌린 후에는 조용하면서 영적인 가사가 있는 찬양곡을 부릅니다. 2-3곡 정도 부르면서 분위기를 최대한 영적으로 이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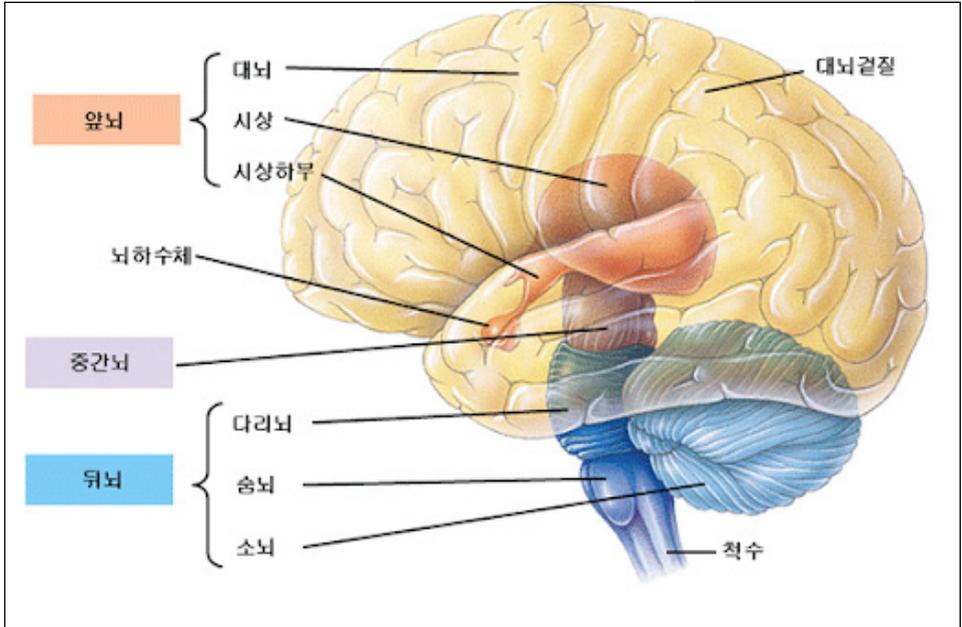
2) 방언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사 59:1] 여호와 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
지 못하심도 아니라
[사 59:2] 오직 너희 죄
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
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서 너희를 듣지 않으니
게 함이니

- 어느 정도 찬양을 부르다가 적절한 순간에 방언기도를 드립니다. 방언기도는 세파크 방언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파크 방언기도는 세게, 빠르게, 크게 방언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 a. 세게: 형식적으로 힘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열정적으로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 b. 빠르게: 방언기도 속도를 아주 빠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 c. 크게: 방언기도를 아주 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음을 높여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장소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음을 최대한 높이고 대신 소리는 작게 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3) 뇌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 방언기도가 끝난 후에 영광체험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 뇌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 보십시오. 정확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 그림에서 측두엽을 찾아보세요. 측두엽 한 가운데 부분을 찾아보세요. 기저핵과 시상이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보십시오.



- 4) 이번에는 뇌에서 환상을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 당신은 어디서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
 - 하나님의 환상은 뇌와 이마 사이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두 눈이 한 가운데로 모여질 수 있는 가장 근거리 부분에서 보기도 합니다. 대략 눈에서 주먹정도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대언예언반 교재

초판발행 2016. 7. 18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등 록 제C-2013-018595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909-8844(손에스터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국제신학교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이런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각종 성령의 은사(대언예언, 신유은사, 영분별, 방언통변 등)를 통해 강력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목회자의 소명이 있으나 생활책임을 위해 불가불 여가시간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싶은 분!

신학생 모집요강

▶ 사역확학사과정

- 인원: 00명
- 필수: 온라인 필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고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확학사과정

- 인원: 00명
- 필수: 온라인 필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고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사역석사과정

- 인원: 00명
- 필수: 온라인 필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고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석사과정

- 인원: 00명
- 필수: 온라인 필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고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국제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연합)총회의 신학교로서 강도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국제신학교는 1년 6학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능력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 국제신학교는 수시입학이 가능하며 한부분 사역지일 경우 학비 면제를 받습니다.

● 접수: www.wslseminary.com

● 이메일: inourlove@gmail.com

● 문의: 손에스터목사(010-3909-8844)

● 유튜브채널: www.RevivalForChurch.com